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2/02~2026/02/08]

2026.02.09

[로봇] 전략 산업이 되어가는 로봇 산업

- 배터리 기업들의 로봇 진출 가속. 자동차 부품사를 넘어, 전기전자 부품사도 전환
- 현행 로봇 AI 아키텍처에 대한 비판확대. 언어 모델 넘어, 물리적 접촉이라는 본질 반영 필요
- 미국, 국가로봇위원회 설립과 중국산 휴머노이드 조달 금지 추진

[방산] 미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

- 사우디 WDS 기간 돌입. 국내 방산 기업들 조단위 계약 및 다수 MOU 체결 기대
- 올해 미국 차기 자주포 사업자 선정 기대. 까다로운 미국 육군 요건 충족 여부 주목
- 트럼프,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 확립 행정명령 발표. 무기 판매 우선순위를 변경

[조선] 사우디 합정 수주 노력

- LNG 수주 증가. 우드사이드와 카타르 발주 가능성까지. 중국도 연이은 수주에 타이탄한 슬롯
- 캐나다 조달장관의 방한. 잠수함 시승부터 방산/자동차 산업 협력, 군사지원도 요구
-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도 WDS 참여. 잠수함과 호위함 수주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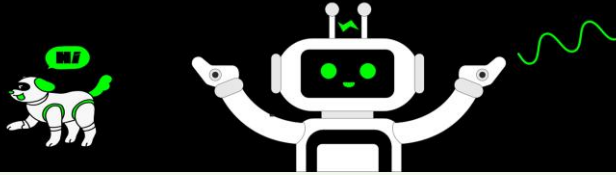
[항공] 1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 대한항공의 수익성 강화 노력. 수요 좋은 일본 주요도시와 소도시 증편
-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부 매각 부메랑. 수익성 악화 탈피 못해
- 에어프레미아, 노조 임금 협상 난항에 조종사 파업 가능성

[해운] 벌크 구조적 개선 신호

- 컨테이너 운임 4주 연속 하락, 벌크 운임 중대형선 중심 반등
- 산은, HMM 보유지분 35.4% 단독매각 검토, 성사땀 민영화 급물살
- 중국, 수습역달러 규모 파나마 현지 투자 중단 지시. 홍콩기업 운하 운영권 판결 보복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전략 산업이 되어가는 로봇 산업

미국 의회에서 국가로봇위원회 설립 법안과 휴머노이드 로봇 법안이 발의됨. 정부 차원의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으며, 단순 기술 우위 추구에 그치는 것이라 아니라 안보와도 연계 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4)

[전략 산업이 되어가는 로봇 산업]

- 미국 의회에서 (1) 국가로봇위원회 설립 법안 및 (2) Humanoid ROBOT Act가 발의됨.
- (1) 국가로봇위원회 설립 법안(H.R.7334)은 로봇 기술 경쟁력 평가와 국가 로봇 전략 및 공급망 관련 정책을 권고하는 기구 설립을 추진.
- (2) Humanoid ROBOT Act(S.3275)는 [1] 연방 행정부 기관의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 국가로부터의 휴머노이드 조달을 금지, [2] 우려국의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에 대한 투자를 CFIUS 심사 대상으로 포함. [3] 우려국 내 휴머노이드 민/군 활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에서 정부 차원의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중. 단순히 로봇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산업을 국가 안보와 연결지어 바라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Key Chart: 국가로봇위원회 설립 추진 법안

H.R.7334 - To establish a commission on robotics, and for other purposes.
119th Congress (2025-2026) | Get Alerts

BILL Hide Overview X

Sponsor: Rep. Obermayer, Jay (R-CA-23) (Introduced 02/03/2026)

Committees: House -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Energy and Commerce; Foreign Affairs; Education and Workforce

Latest Action: House - 02/03/2026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and in addition to the Committees on Energy and Commerce, Foreign Affairs, and Education and Workforce, for a period to be subsequently determined by the Speaker, in each case for consideration of such provisions as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concerned. (All 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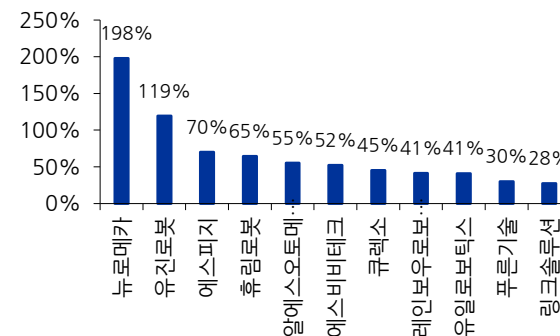
Tracker: Introduced Passed House Passed Senate To President Became Law

자료: 미 의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2/02~02/08)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산업용 로봇 수출 35% 폭. "K로봇, 이제 증명의 시간"
- 네이버, 엔비디아 플랫폼 활용해 실외배송 실증 추진
- 유일로보틱스, 미국 조지아주에 현지 법인 설립

[휴머노이드]

- 위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드맵 제시. 28년 이족보행 출시
- 포스코 제철소에 휴머노이드 현장 검증 추진
- 티로보틱스, '즉시 투입' 휴머노이드 로봇 내달 공개

[부품/SW/기타]

- 현대차 노조 "로봇 도입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
- 현대차 로보틱스랩장 "로봇 사람 대체 사회 합의 필요"
- 로봇 조작, 기존 RFM만으로 안 된다. 다른 길 찾아야
- 삼성SDI "휴머노이드에 전고체 배터리 적용 논의 중"
- 삼성리서치아메리카, 로봇 인재 채용 활발
- 액트로, 로봇 사업 진출. 자사주 처분해 시설 투자

[Global]

- 美 국가로봇위원회 설립-중국산 휴머노이드 조달 금지 추진
- 테슬라, 3세대 휴머노이드 곧 공개, 연간 백만 대 생산
-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안전 표준 수립 막바지
-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 5G 연결 추진
- 북미 로봇 주문 6.6% 반등. 비자동차 산업이 성장 주도
- 中 로봇, 줄줄이 투자유치 성공. 국영펀드 대거 참여
- LimX Dynamics, 시리즈 B 200M USD 유치
- 중국 애지봇 '연산 2000대' 유럽 공장 추진
- 화낙, 로봇 제어 SW 개방. 제휴와 협업의 길로 나서



Weekly Keyword

미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

미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 이번 사업은 M777 견인포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요구 중. 올해 시제품 계약 체결하고, 최대 500대 규모 본양산 계약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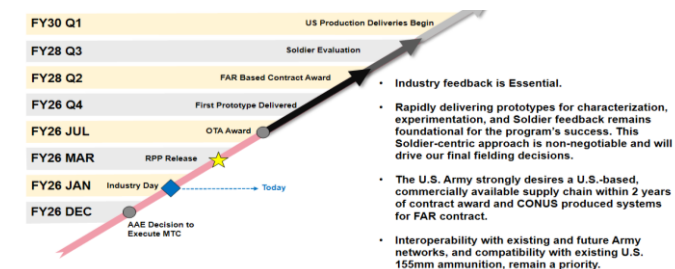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62)

[미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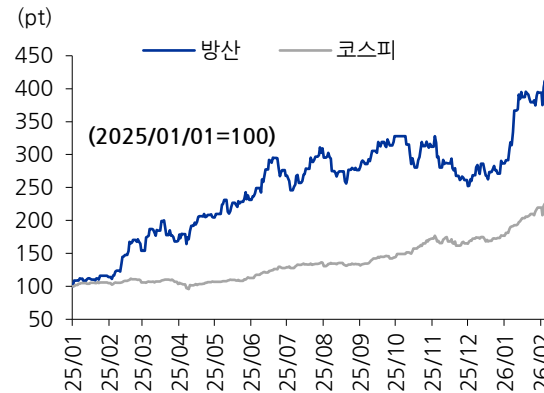
- 미국 차기 자주포 사업 본격화. 올해 7월에 '시제품' 계약 체결 예정(6대+α). 3월 시제품 최종안 발표될 계획. 2028FY에 최대 500대 규모의 '차륜형' 자주포의 생산 계약이 체결될 예정. 계약 체결 이후 2년 내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연간 48대 CAPA 구축할 필요(초기 24대).
-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 5개 이상 업체가 경쟁 중. 본 사업은 M777(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져있고, M109A7가 에 이브람스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와 운용되는 것과 달리,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운용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경량화가 필수. 그 외, 미국 탄약 호환, 높은 수준의 장갑, 미국 국내 생산 등을 요구 중.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 부지 선정 작업 돌입. 조선, 자주포, 탄약 3대 사업 중심으로 미국 시장 공략 추진.
- 이와 별개로, 이번 주 사우디에서 WDS 개최. 한화의 지상방산 수주 업데이트, KAI의 KF-21 수주 협상 진척 등 성과 소식 기대.

Key Chart: 미국 자주포 사업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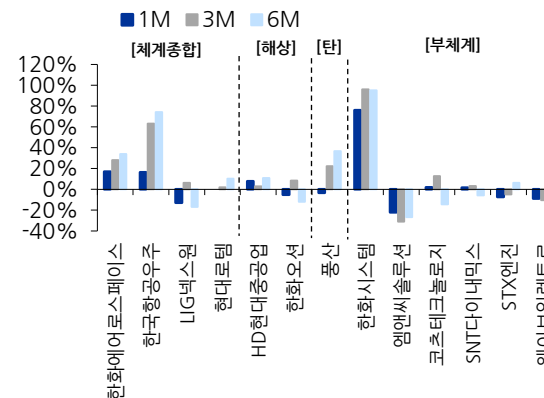


자료: 미국 육군,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2/02~02/08)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노르웨이 천무 수주 공시. 1.3조원 규모
- KAI, 1,000억 규모 필리핀 FA-50 군수지원 계약
- 루마니아 전차와 장갑차 사업 14조원 상반기내 결정
- 한화에어로 등 韓방산기업들, 베트남서 방문 설명회
- 방글라데시, KAI 미르온과 수리온 구매 검토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캐나다에 화력·기동 통합 솔루션 제안
- 한화 방산 3사, 사우디 WDS서 통합 전시부스
- 한화, 루마니아 IFV SAFE 넘어 현지화 80% 목표
- 한화에어로-KAI, 항공엔진·무인기 등 미래사업 맞손
- LIG넥스원 "캐나다, K잠수함 도입때 현지 어뢰공장 설립"
- LIG넥스원, 2,2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 추진
- LIG넥스원, 美 하니웰과 미래형 무인 전투기 개발
- 한국항공우주, 전환사채 5,000억 발행 결정
- KAI, 사우디서 4.5세대 전투기사업 협의 예정
- 한화시스템, 회사채 수요예측서 1.4兆 확보

[기타]

- 안규백, 6일 사우디 방산전시회 참석 및 국방장관 회담
- 폴란드 국방부 한국산 "K2 전차 일부 기술 문제 확인"

[글로벌]

- 젤렌스키 "美, 러우 종전협상 6월로 시한 제시"
- EU, 155조원 규모 우크라 대출 지원 조건에 합의
- 트럼프 "미국 우선 무기 이전 전략 확립" 행정명령 발표
- 美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자 7월 발표"



Weekly Keyword

사우디 함정 수주 노력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부상. 사우디 호위함/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이번 주 개최되는 WDS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마케팅을 진행.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2)

[사우디 함정 수주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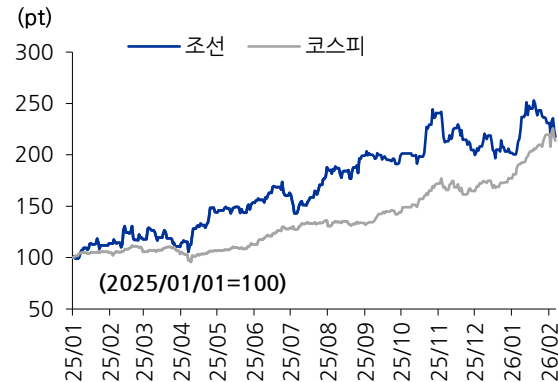
- 이번 주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WDS에 국내 조선소들도 참여할 계획. 사우디에서는 현재 호위함 5척(3조원 규모), 잠수함 5척(5조원 규모)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사우디에서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투자 부와 UG넥스원 등 국내 기업 12개사와 함께 사우디 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
-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12척) 외에도 상당 규모의 함정 도입 사업이 움직이고 있음.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제시한 특수선 수주 목표 30억불은 캐나다 잠수함, KDDX 등을 제외한 숫자.

Key Chart: WDS에 참석하는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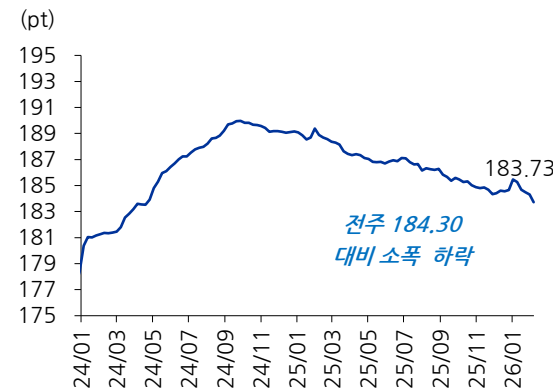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2/02~02/08)

[상선/해양]

- HD현대, 그리스 Tsakos로부터 LNG선 '2+2척' 수주
- 한화오션, 오션원드파워 WTV 1척 525M USD 수주
- HD현대삼호 LNGC 1척 수주. 250.5백만달러. 28년 납기
- 1월 글로벌 발주 37% 급감. 韓, 22% 점유 '질적 방어'

[특수선]

- 한화, 韓 잠수함으로 태평양 건너 캐나다까지 간다
- 加 국방조달장관, HD현대 찾아 잠수함 역량 점검
- 한화, 加 잠수함 MRO 후보지 노바스코샤 주총리 회동
- 加 조달장관 "잠수함 입찰 때 자동차 협력 포함 기대"
- 加, 대 러시아 군사지원 가능 여부 조건 내세워
- 캐나다 밥콕 CEO 9일 전격 방한
- 태국 3조 호위함 사업자 선정 임박, 한화 VS HD현대
- HD현대중, 사우디 방산 전시회 'WDS 2026' 참가

[기타]

- 현대·삼성중공업, 5조원 리비아 해양플랜트 수주전
- 삼성중, 중동 AM 시장 공략. 카타르 조선소와 MOU
- 美 "한미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 현대중, 로이드와 4만 CBM급 LNG선 공동개발 추진

[글로벌]

- 우드사이드, LNGC 선주 및 조선소 선정 마무리 단계
- 카타르 특수 온다. LNGC 최소 70척 추가 발주
- 中 한 달 새 LNG선 13척 싹쓸이
- 노르웨이 212CD형 잠수함 2척 추가 발주
- 獨 TKMS의 반격. 加 건설 공룡 '엘리스돈' 우군 영입



Weekly Keyword

1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1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688만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 일본/중국 단거리 고수익 노선 중심 강세. 단거리 수요 강세에 LCC들도 역대 최대 수송 실적을 갱신 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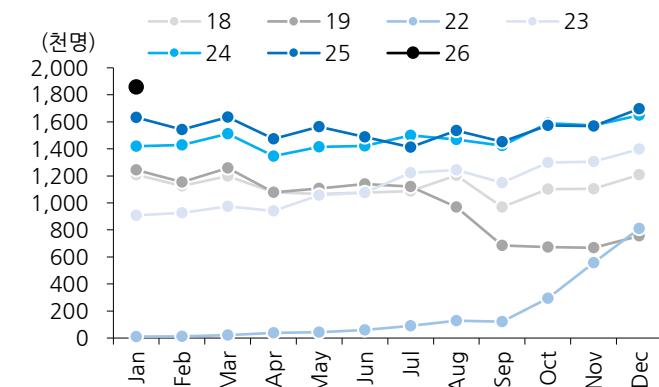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2)

[1월 인천공항 수송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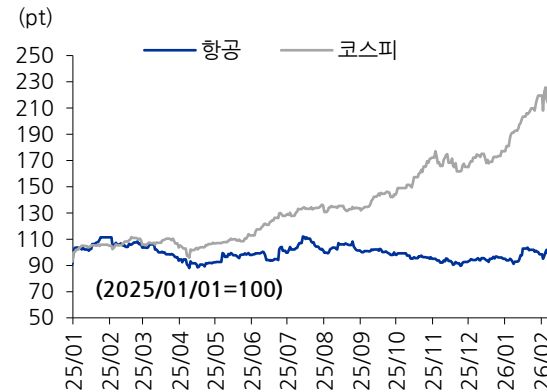
- 2026년 1월 인천공항 기준 국제선 여객 수는 688만명(+5%yoy)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 노선별로는 일본 186만명(+14%yoy), 중국 114만명(+23%yoy), 동남아 195만명(-6%yoy), 대양주 25만명(-1%yoy), 미주 55만명(-2%yoy), 구주 35만명(+4%yoy)을 기록.
- 겨울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노선 수요 부진 지속되는 중. 반면, 일본으로의 여행 수요 집중, 중국의 전년비 두자릿수 증가세 유지되고 있는 점 주목. 단거리 고수익 노선 기반 LCC 수익성 개선 흐름 기대. LCC 중 제주항공(58만명), 티웨이(50만명), 진에어(48만명), 이스타(27만명)가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최대 수송 실적을 기록함.

Key Chart: 일본 노선 여객 추이(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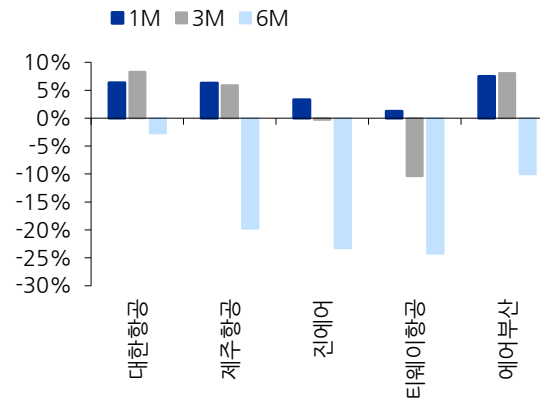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2/02~02/08)

[여객/화물]

- 대한항공도 일본 소도시 강화. 아오모리 증편
- 대한항공, 1Q 성수기 나리타~후쿠오카 증편 운항
- 피치항공 "김포~오사카 하루 4회 왕복 증편"
- 작년 에어서울 평균 지연율이 36.9%로 1위
- 티웨이항공 인천-자그레브 직항, 7~10월 운영
- LCC 격전지 된 김해공항. 대한항공 비중은 축소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컨설팅 회사에 시니어리티 컨설팅 요청
- 대한항공, 주당 750원, 2,770억원 주주 배당
- 아시아나항공, 작년 영업손실 3,425억. 적자 전환
-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결과 '실적 부메랑'
- 제주항공, B737-890기 구매 도입 완료
- 에어부산 임금협상 난항. 노조 집회
- 에어프레미아 조종사 파업 '초읽기'. 서울지노위 조정 신청

[기타]

- 비만치료제 열풍에 항공사 연료비 절감 전망

[글로벌]

- 中 자체 제작 여객기 C919-C909 싱가포르에어쇼 참가
- 보잉-GE, 777X 항공기 엔진 실험 결함 발견



Weekly Keyword

벌크 구조적 개선 신호

2026년 연초 이후 벌크 운임 반등 중. 4Q25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 철광석 생산이 본격화된 이후, 기니 지역 항만 정체로 대서양 선박이 타이트해진 영향. Capesize 주도의 BDI 강세 지속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

[벌크 구조적 개선 신호]

- 2026년 들어 BDI는 1,532pt까지 하락한 후 BCI(Capesize) 상승에 힘입어 2/6 주간 기준 2,011pt로 반등. 중국 제철소 마진 압박에 따른 철광석 수요 증가로 호주발 물동량 증가. 추가로 기니 지역 항만 정체가 장기화되며 대서양 가용 선박이 타이트해진 영향으로 판단.
- 4Q25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 철광석 생산이 본격화되며 벌크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 지속. 기존 호주-중국 항로 대비 약 3배 긴 항로, 연간 최대 1억 2천만톤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소량의 대체만으로 톤마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Capesize의 높은 장기계약 비중(글로벌 2,000대 중 1,500대가 장기계약임)을 근거로, 기니 항만 정체 장기화에 따라 BDI는 견조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

Key Chart: 호주 vs 기니 철광석 항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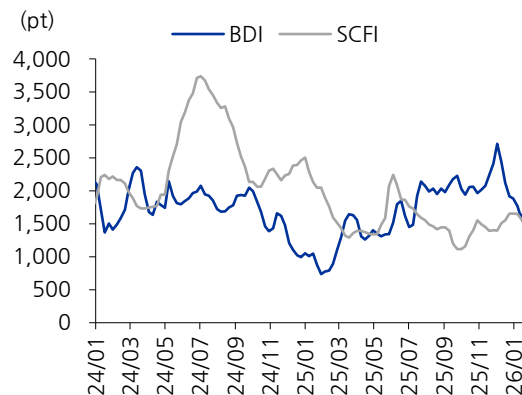


자료: Drewry,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2/02~02/08)

[벌크선]

- 글로벌 해운시장 회복...건화물 운임지수 '쑥' 컨테이너 '뚝'
- HMM, 벌크-자동차선 잇따라 인수 선대 전략 전환 속도
- 니켈광석 선적시 IMSBC Code 요건충족 확인 필요

[탱커/가스선]

- 장금상선, 세계 1위 VLCC 해운사 꿈꾸나...35척 매입
- SK해운 '장기계약' 비중 확대... 수익성 개선 청신호
- LNG, 2040년까지 650척 필요 공급과잉 → 구조적 부족
- 트럼프, 이란 '경제 봉쇄' 가속...유가 변동성 촉각

[컨테이너선]

- Gemini 협력, 해군 지원하에 IMX노선 흥해복귀
- 노후 컨테이너선 해체량 20년만에 최저치 기록
- '반토막' 난 운임... 노선별 하락세 뚜렷, 흥해 특수 끝났다
- 부산항 지난해 역대 최대 환적량, 2,540만TEU 달성 총력

[기타]

- 산은, HMM 단독 매각 검토...다시 돌아온 인수전
- 현대글로벌비스, '캐시카우' 해운 강화...“中 물량 정조준”
- 현대글로벌비스, 무디스 신용등급 'A3'로 상향...첫 A등급
- EU, 20차 대러제재안...‘전쟁돈줄’ 옥죄려 해상서비스 금지
- 파나마 대법원 판결에 보복 나선 중국...현지 투자 중단 지시
- KESTO, 한국서 첫 해상풍력용 CTV 건조 착수
- 광양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전략 본격 추진
- 씨드로닉스, 선박 운항 모니터링 솔루션 유럽서 실증 성공